

코로나19 이후 CSR 환경변화 및 대응

2020. 8. 18.

삼성경제연구소

함께가요 미래로!
Enabling Peopl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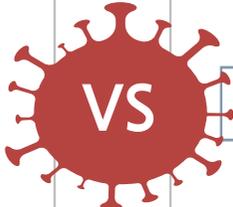
* 본 자료의 내용은 자유롭게 인용/배포 가능합니다.

코로나19가 바꾼 CSR 환경 : ① 복지서비스 수요 vs 공급 불균형 확대

복지 수요

대상 확대	선별적 복지 ⇒ 보편적 복지 (취약계층) (일반시민)
분야 다양	생계보조 중심 ⇒ 생계보조 + 보건의료
규모 증가	통상적 지원 ⇒ 긴급복지요구 ↑ (경제활동중단으로 발생)

☞ 복지서비스 대상, 분야, 규모 대폭 증가



복지 공급

기업	비즈니스 부진으로 CSR 여력 저하
의료계	코로나19 치료대응으로 과부하
정부	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

☞ 공공부문 지출 확대에 의존 심화

코로나19가 바꾼 CSR 환경 : ② 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비

□ 전통적 복지서비스 전달 방식인 면대면 서비스와 집합 시설 운영에 타격

- **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전달이 사실상 마비, 대체 서비스는 질적 저하 불가피**

※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중지, 복지관 폐쇄로 급식 → 도시락 배달로 전환 등



집단 프로그램



사회복지 생활시설



대면 의료서비스



심리상담 서비스



"실제 현장에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100% 오프라인 방식으로 전달되었음.

아동청소년, 경증 장애인 등은 일부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필요한 재정/인력확보가 어렵고, 중증장애인, 노령층 대상 서비스는 대안이 없는 상황" (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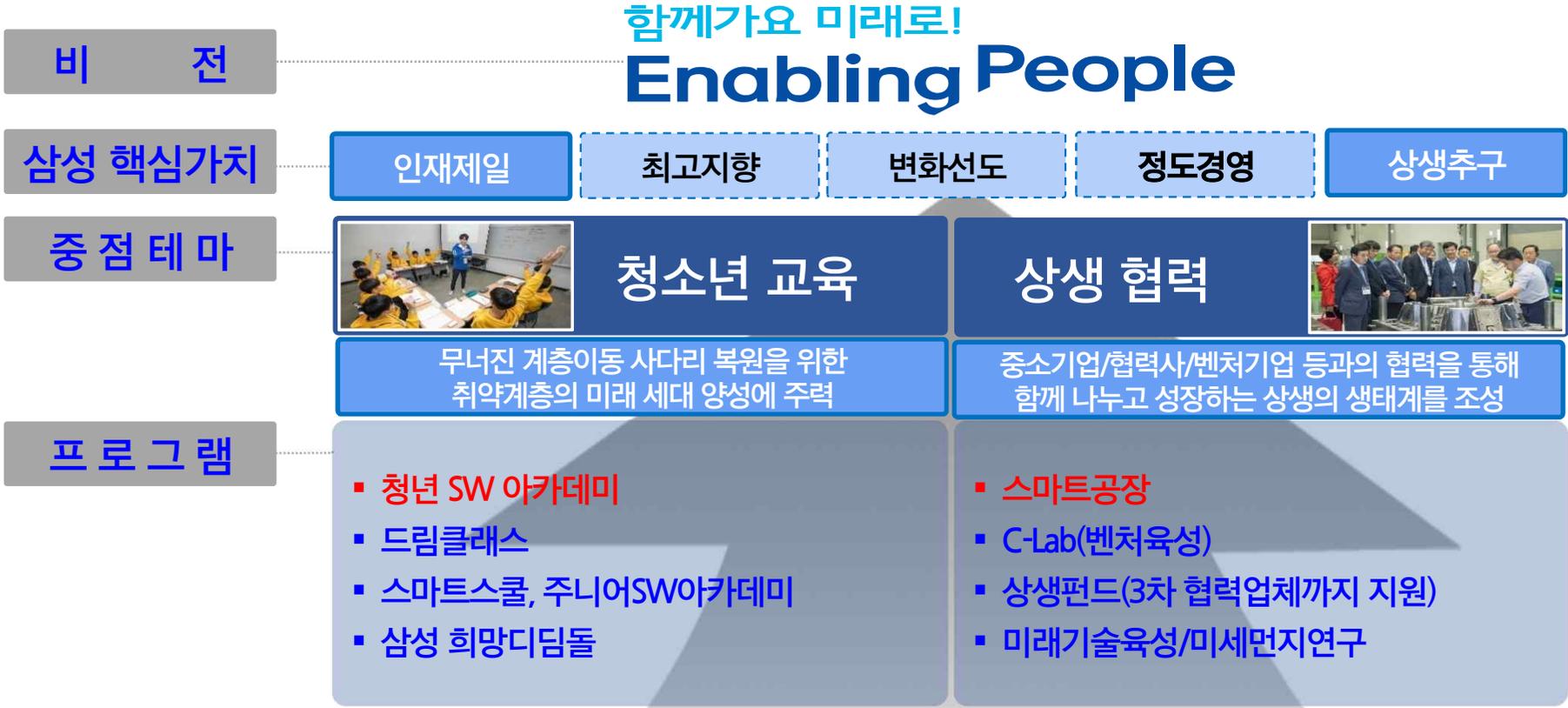


“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
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자”는 것이
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는 CSR의 목표이자 지향점



- ① 경영진은 CSR 활동을 기업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
- ② 우리 사회의 난제인 ‘사회 양극화 해소’와 ‘청년 실업문제 해결’ 등을 위해 삼성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
-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장기간 함께 해결책을 모색, 추진 ⇒ Collective Impact 극대화

▶ 삼성 경영철학/핵심가치와 연계, CSR 비전 및 중점 테마 재정립



대응 : ① 보건의료 지원

▶ 긴급한 보건의료 니즈를 실시간 센싱,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필요 물품/서비스를 신속, 집중 지원

□ 성금기부 / 마스크 공급 지원

① 긴급구호기금 출연(300억원, 2.26일)

-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
자가격리자 식료품키트,
의료진 건강증진키트/냉방조끼 등 지원

②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해 마스크 공급 지원

- 계열사 해외지사를 통해 마스크 33만개 확보/기부
-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입, 조달청에 원가 공급

☞ 정부, 지자체, NGO와 긴밀히 협력해 긴급 지원 제공



대응 : ① 보건의료 지원

▶ 정부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, 민간은 경증환자 치료를 분담해 협력

□ 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을 치료센터로 개방

- ◎ 초기 대구지역 감염자 폭증/병실 부족으로, 정부는 세계 최초 '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' 도입
 - 중증과 경증 환자 분리 격리·치료 체계 마련
 - 기업, 대학에서 연수시설 무상 제공, 15개 센터 운영

◎ 삼성 영덕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(3.4 ~ 4.30일)

- 삼성서울/강북삼성/삼성창원병원 의료진 파견
- 환자 254명 입소, 완치 225명 (완치율 88.6%)

☞ 정부/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 K-방역 모범 사례 제시

매일경제

2020년 03월 03일 화요일 A20면 기업

삼성, 코로나 극복 전방위 지원 나섰다

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
코로나생활치료센터로 전환
300억 지원·1조협력펀드...
이재용 "상생 기업문화 박차"



삼성, 전사적 코로나 대책 마련

- 영덕연수원, 경증 환자 전담 시설로 제공
- 구호물품·구호성금 등 300억원 긴급 지원
- 온누리상품권 300억원 구입, 협력사에 지급
- '꽃 소비 늘리기' 동참해 화훼농가 지원
- 1조원 펀드 조성해 협력사 운영자금 지원
- 협력사 물품 대금 1조6,000억원 조기 지급



삼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의 사회·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원을 치료센터로 제공하고 협력사 및 소상공인에게

로 제공한다고 밝혔다.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구·경북 경증환자가 입소한 생활치료센터가 확대하다고 밝혔

소유권자인 삼성전자가 협의해 시설 제공을 결정하고,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먼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. 앞서 삼성전자·디스플레이·SDI 등 14개 삼성 계열사는 코로나19 극복 노선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·물품 등

대응 : ② 온라인교육 지원(청년SW아카데미)

□ '18년부터 5년간 S/W인력 1만명 양성 목표(전국 4개 센터 운영)

※ 서울, 대전, 광주, 구미

□ 삼성의 SW 교육 경험과 노하우 활용,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, 취업경쟁력을 향상

① 만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1년간 SW 교육 실시

- 1기(18.12월) 500명, 2기(19.6월) 500명 수료, 3기(19.12월) 750명 운영, 4기(20. 6월) 500명 선발

- 5개월(코딩교육) → 1개월(1차 Job Fair) → 5개월(프로젝트 수행) → 1개월(2차 Job Fair)

② 취업컨설팅, 기업 채용연결, 구직행사 등 취업지원 병행



< SSAFY 교육생 모습 >



< SSAFY 교육생 모습 >



< 고용노동부-삼성 업무협약(18.12.20) >

▶ 삼성의 청소년 교육 CSR 프로그램을 온라인 위주로 전환 / 실행

□ 삼성 청년SW아카데미에 온라인 교육 도입

◎ 기존 : 전국 4개 지역 교육센터에 집합

- 1년간 오프라인 교육 및 취업지원 행사 실시



◎ 변경 : 온라인 강의, 원격 팀프로젝트 진행

- 재택 수업용 노트북 지급
- 다양한 온라인 협업 툴 활용 :
Youtube 라이브(강의),
Zoom 화상 미팅(팀별 복습, 실습),
mattermost 채팅서비스(공지/출결관리) 등



대응 : ③ 핵심역량 활용한 상생협력(스마트공장 지원사업)

□ 삼성의 제조혁신 역량/노하우를 활용,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(삼성 거래관계와 무관)

→ 국내 제조업 Supply Chain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생태계 조성

- 삼성전자의 20년 이상 경력 혁신전문가 200명 전담조직(스마트공장지원센터) 구성
- 지원금 年 약 200억원, 총 1,600억원 조성(정부/삼성 매칭)
- 중소벤처기업부(정책수립/비용매칭), 중소기업중앙회(업체선정/자금집행) 협력사업

□ '15~'19년 2,161개사 지원, '20~'22년 1,400여개사 지원 예정



< 스마트팩토리 보급 업무협약(18.10.24) >



< 레스텍(마스크제조기업) 직원과 삼성전자 직원이 마스크 생산 상태를 점검 >



< 솔젠트(진단키트제조기업) 직원이 자동화 기기로 코로나19 진단시약 용기마개를 조립 >

대응 : ③ 핵심역량 활용한 상생협력

▶ 기업 보유 역량(제조기술)을 CSR에 접목, 보건의료 분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

□ 마스크 제조 4개사 생산성 향상 지원

- ◎ 대상 : E&W, 레스텍, 에버그린, 화진산업
- ◎ 내용
 - ① 제조 공정 비효율 개선
 - 제조라인 레이아웃 최적화, 병목 공정 해소 등
 - ② 마스크 필터 신규공급처 연결, 재고부족 해결
 - ③ 삼성금형공장 활용, 제작기간 단축(2개월→1주)
- ◎ 성과 : 합계 생산량 51% 증가 (日 92만개 → 139만개)

👉 마스크 생산량 증가를 통해
국내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



▶ 기업 보유 역량(제조기술)을 CSR에 접목, 보건의료 분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

□ 진단키트 제조 3개사 생산성 향상

◎ 대상 : 솔젠트, SD바이오센서, 코젠바이오텍

◎ 내용 ① 다품종소량생산 → 대량생산 체제전환
· 금형, 물류동선 최적화, 포장 공정개선, 자동화 설비 도입 지원 등

② 시약용기 금형기술 적용 국산화

◎ 성과 : 솔젠트 생산량 73% 증가
(주 11,900키트 → 20,571키트)
코젠바이오텍 생산량 79% 증가
(주 5,600키트 → 10,000키트)

☞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내산 진단키트 해외수요에 대응하여 대량생산 및 수출증대에 기여

한국경제 2020년 06월 11일 목요일 A18면 산업
삼성의 '기술 레슨' ... 진단키트 40개국 수출 무산 막았다
(솔젠트)



솔젠트 직원들이 10일 대전시 유성구 본사를 방문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(왼쪽 네 번째)과 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(여섯 번째)에게 스마트공장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. 증기증양회 제공

① 이제 집으로 갑니다: 영덕 생활치료센터 두 달간의 기록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F2GwsnQSH6Y&t=10s>

② "손가락으로 세상을 바꿔요" SSAFY 2기가 밝힌 개발자 되는 법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G6kb13jUwas&list=PLTHa7qutpLjAo2s2TEIB7FGcMtr7UTyn_&index=6&t=5s

③ 키트, 만능키를 쓰다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WayCRcelbTU&list=PLTHa7qutpLjBXAzW9Z-DGTOIVdS0BsOSw&index=3&t=6s>



함께가요 미래로!

Enabling People